



한림성심학보

2023 | 06월 제278호

발행일 2023년 06월 01일 목요일
한림성심학보사 (033)240-9309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LINC 3.0사업, HIVE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 3관왕
연간 75억원 수혜

문영식 발행인 | 이하영 주간 | 최지연 편집장 | 김가은 디자인 | 김성민 간사 | CBS 박정민 고문 | HALLYM POLYTECHNIC UNIVERSITY | 창간일 1988년 6월 22일

01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교내 카페 옆 포토존 사진
다채로운 스승의 날 행사 눈길
호텔조리과 국내 최대 요리대회에서 금맥을 캐다
김종기, 홍성욱 교수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표창 수상
교수와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Lunch with Students' 진행

02-03 학교

뜨거웠던 한빛제의 현장 속으로!
지위성과를 졸업하고
남수단으로 파병가는
박한결 중사의 이야기
예술을 통한 인문학 콘서트
열려... 큰 호응 눈길
뮤지컬을 통한 학생들의
마음 위로

04 학교

계속되는 도전 맞다 우리 형
국내 축구팀 끝까지 FC 소개
한빛도서관의 영화 FLEX!
BOOKFLIX 영화 상영회
혁신사업단 SDG 프로젝트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유아교육과' 참여!

05 문화

찬반토론 :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복지인가?
차별인가?
이별 뒤에 남은 물건을
보낼 곳이 있으면 어떨까?
'이별 박물관'

06 사회·과학

국내 개그맨의 투병 고백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란?
우주에서 의약품을 만든다?
원시 않는 위치 추적,
이제는 차단할 수 있다
공방이가 플라시틱을 먹는다

07 종합

기자칼럼 : 쉬어가고 괜찮아
너도 되어 보지 않을래,
올림픽 자원봉사자?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법 공포' 촉구서위
식중독 바로 알기!

08 종합

강릉 산불 기부! 댓글만 써도
도울 수 있어요!
취준생 프로그램으로
자신감 채우자!
도서관 이달의 책
'책으로 만나는 세계사'
한 줄 격언, 공감 한가득
성심인들의 장마리 문학 글짓기

09 웹툰

즐거웠던 체육대회의 추억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

우리 대학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보건의료분야 정원
배정 결과 입학정원(6명)을 증원받아 2024학년
도부터 총 134명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으로 우리 대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간호 인재 양성
대학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지역 간의 보건 의료
격차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간호학과

우리 대학 간호학과는 일송재단 산하 5개 대학병
원과의 연계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우수한 취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한국간호
교육평가원으로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간호교육
인증을 받아 4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간호사 국가시험에
서 6년 연속 100% 합격률을 기록하였고 2019년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전국수석을 배출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학과로서의 면모를 증명하고
있다.

김성민 간사

교내 카페 옆 포토존 사진



다채로운 스승의 날 행사 눈길

등 대학을 위해 헌신하는 구성원들에게 꽃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더불어 학과에서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지도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학생들 각자의 생각을 담은 롤링페이퍼를 제작
후 지도교수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영식 미래전략기획실장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5일 다채로운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미화원분들에게 케네이션을 전달해드린 학생들

우리 대학 총학생회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문
영식 총장과 교무위원을 포함해 미화원, 영양사



유아교육과 스승의 날



문영식 총장과 총학생회장

이도경 총학생회장은 "스승의 날은 교수님을 비롯
해 학생과 대학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호텔조리과

국내 최대 요리대회에서 금맥을 캐다

우리 대학 호텔조리과 학생들은 19~21일 서울
양재동 α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제 요리 & 제과 경연대회'에서 라이브경연 종목
에 2팀(10명)이 출전하여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팀(김재은, 이승혁, 용석오, 나준원, 최윤성)
2팀(안재호, 이수정, 한준이, 박건원, 정하늘)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과 더불어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LINC 3.0 사업 등 대학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조리
방법 실현,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스토리텔링 만들
기와 같은 작업을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감동
을 주는 요리를 만들어 이번 경연대회에서 수상
을 했다.

금상을 수상한 김재은 학생은 "작년 대회에 참여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요리의 콘셉트 개발과 이름
짓기, 스토리텔링, 플레이팅 등을 보완하여 더욱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도전
을 통해 이번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만큼 후배들
이 교수님들과 합심하여 다양한 분야에 도전했
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은 학생은 다소 독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으로 4년제 대학을 다니던 중, 취업을 위해
지난해 우리 대학 호텔조리과의 입학 결정을
하며 적성을 찾은 덕분에 입학 후 현재까지 학과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송청락 호텔조리과 학과장은 "호텔조리과는 교수
님들이 합심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각자의 장점을 살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라며 "한림성심대학교
호텔조리과 입학이 조리사로서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민 간사

김종기, 홍성욱 교수

제42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정부표창 수상



건축디자인과 김종기 교수님

건설도시과 홍성욱 교수님

우리 대학 김종기 교수와(건축디자인과) 홍성욱
교수(건설도시과)는 제42회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유공 교원 인재양성 분야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표창
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종기 교수와 홍성욱 교수는 전공분야의 후학양성
을 위해 노력하고, 학문적·기술적 노하우 전수를
통하여 우수 인재 양성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
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대학은 대학정보공시
센터 대학알리미가 공개한 2022년 전문대학 취업
률 현황에서 전국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71.3%)
을 상회하는 71.5%의 취업률을 기록하였다.

김성민 간사

교수와 학생이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Lunch with Students' 진행



행정실무과

우리 대학은 1학기 'Lunch with Studen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과 지도교수가 함께 점심을 먹고 소통함으로써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력 향상과 교수와 학생
간의 유대감 형성 및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제고
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Lunch with Students'
프로그램은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5
월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됐다.



물리치료과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Lunch with
Students'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신입
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다 2021년부터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여 학기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2
학기에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주 학생(행정실무과 1학년)은 인터뷰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교수
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김성민 간사

뜨거웠던 한빛제의 현장 속으로!

피구 준결승으로 향하기 전 인터뷰!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22학번 황 하나입니다.
- Q** 많은 종목 중에 피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A**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피구부를 했었는데, 대학교 와서 피구를 할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통해 피구를 하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Q** 이번 대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A** 저희 응원법이 있는데 상대방의 기를 누르기 위해 만든 것이 있습니다.

혜음(유아교육과)

- Q** 유아교육과 동아리 혜음에서는 이번 체육 대회 어떤 테마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 A** 저희 동아리는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자주 하는 활동이라 특기를 살려 다른 학생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Q** 부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점이 있나요?
- A** 단순 공예품이라고 하면 어떤 재료로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것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운제나(간호학과)

- Q** 라운제나에서 금연이라는 주제를 선정할 이유가 있나요?
- A** 흡연은 백해무익하잖아요. 저희학교도 흡연자들이 많은데 저희 동아리부스를 통해, 다시 한번 흡연 시 받게 되는 몸의 문제와, 폐활량 등 부정적인 면을 각인시켜 주면서,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 Q** 라운제나 동아리 홍보와 함께 현재까지 활동 중인 동아리 부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A** 저희 동아리는 금연을 권장해 드리며, 흡연의 문제점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스 체험 하시면서 금연의 중요성을 되새김하고 모두 금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활동하는 부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화이팅!

최준영 기자 jychoi0304@naver.com

- Q** 그러면 앞으로 몇 경기 남지 않으셨는데요. 앞으로 경기에 대한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A**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너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교수님의 한마디

- Q** 경기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A** 학생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안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규칙을 잘 지켜서 다치는 사람이 또한 없어야겠죠. 즐겁게, 만끽하는 봄날의 5월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응원단장

물리치료학과 2학년 김형섭

- Q** 다른 학우분들과 응원을 열심히 하시던데 어떻게 단합을 기르셨나요?
- A** 제가 특별히 잘했던 것은 아니고 물리치료학과 학생 한명 한명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자연스럽게 이러한 단합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Q** 결승전을 앞두고 응원하는 심정이 어떠셨나요?
- A** 무엇보다도 결승전 하는 날이 제일 간절했습니다. 모두가 노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 Q** 마지막으로 피구 대회에서 우승한 학우분들에게 축하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A** 피구대회에 나간 물리치료학과 학생분들 모두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는데 끝까지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결승에서 이긴 것이 너무나도 부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 Q** 종합우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A** 작년에 이어 졸업 전에 올해도 우승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고, 행사 전에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잘 해결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바리스타제과제빵과 학회장)
- A** 작년에에도 1등하고 이번에도 1등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대학 생활 2년 하면서 모두 우승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레저스포츠학과 학회장)
- A** 저희과는 작년에 아쉬운 결과를 남겼었는데 이번에 바리스타 제과제빵과와 레저스포츠학과와 함께 연합하면서 좋은 결과를 남겨서 좋습니다. (글로벌관광과 학회장)

부스 체험 소감 인터뷰

- Q**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한림성심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이용우입니다.
- Q** 아까 혜음에서 부스 체험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 A** 아까 혜음에 사실 친구가 스티커 붙여줘서 그거 복수하러간 거거든요. 근데가서 스티커 만들고 서로 붙여주면서 재미있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 Q** 다른 부스 체험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스 체험 활동이 있으신가요?
- A** 간호학과 슈프림 부스에서는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직접 시행해주고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신기했고, 제 건강 상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 배드민턴 우승

레저스포츠학과 2학년 민승희, 김동하

- Q** 결승에서 이기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 A** 올해 들어 최고 행복한 날 같습니다. (민승희)
- A** 많이 준비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김동하)
- Q** 경기 도중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 A** 상대 팀에도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많이 고전하다가 3세트 때 힘들게 이겼습니다.
- Q**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믿는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Q** 마지막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신 학과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 A** 응원 덕분에 이길 수 있었고 저희 학과 역시 최고의 학과 같습니다. (민승희)
- A** 저도 체육대회 때 레저스포츠학과가 이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김동하)

종합우승 인터뷰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학회장, 레저스포츠학과 학회장, 글로벌관광과 학회장



- Q** 종합 우승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A** 노력이라기보다는 각 과에 선수분들이 고르게 있어 잘해주고 그분들이 각자의 학과에 와 준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 Q** 체험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일까요?
- A** 유아교육과에서 진행한 소원을 말해봐 팔찌 만들기 체험 부스가 인상에 깊었습니다. 1000원을 지불하고 실 3개를 골라서 팔찌를 만드는 활동이었는데 수익금 전액이 기부에 사용된다고 들어 부듯하게 만들어 기억에 남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더 많은 부스들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잘 안되었던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오에스터 기자 esther005153@gmail.com



여자 배드민턴 우승

호텔조리학과 1학년 김가영, 사회복지학과 1학년 조연주

- Q** 결승에서 이기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 A** 재밌게 게임을 했고 이겨서 기쁩니다. (김가영)
- Q** 경기 도중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 A** 제 실수를 할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조연주)
- Q**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친구가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줬기 때문입니다. (조연주)
- Q** 마지막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신 학과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와 소감 부탁드립니다.
- A**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열심히 응원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영)
- A** 내년에도 연합합시다. (조연주)



-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A**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다들 고생하셨고 잘 따라줘서 감사합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학회장)
- A** 다친 친구들이 조금 있다 보니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레저스포츠학과 학회장)
- A** 좋은 결과 가져다주신 레저스포츠학과와 바리스타 제과제빵과 학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습니다. (글로벌관광과 학회장)

이예은 기자 yeeun3042@naver.com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남수단으로 파병가는 박한결 중사의 이야기



HSC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치위생과를 졸업한 박한결이라고 합니다.

HSC Q. 18학번이면 졸업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졸업 후에 혹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시 수 있으신가요?

A. 원래 육군 부사관에서 포병으로 2012년도부터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찾아보다가 주간 위탁생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에는 의무 인력이 부족하네 별도의 전공 교육 기관이 없으니 국가가 민간 학교로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면허 취득을 하면 현 주특기와 관계없이 의무 부사관으로 전환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운 좋게 선발되어 18년도에 한림성심대학교로 입학하게 됐고, 3년 동안 군인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HSC Q. 남수단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남수단은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건가요?

A. 따로 군 내에서 파병 인원 선발 공고가 올라 갑니다. 제가 군 생활에 계속 뜻이 있고, 인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해외 파병의 경험을 쌓아보는 거였는데 만약 포병이었다면 경쟁률이 굉장하실텐다. 포병지체를 잘 안봤다 보니까 지원을 못했는데 한림성심대학교 치위생과를 들어가서 치위생사 면허를 따니까 남수단에서 치위생 부사관 한 명을 뽑는 공고가 올라 왔는데 자격 자체가 주어져서 운 좋게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남수단공화국
Republic of South Sudan

수도 : 주바 (Juba)
면적 : 64만 4329km² (한반도의 3배)
언어 : 영어, 아랍어, 토착어
종교 : 토착신앙, 기독교

우리나라와의 관계
-외교관계 : 2011.07 수교
-공관현황 : 아국 : 주우간다(대) 겸임
-교역 : 2900천불

수출품목
서적, 비금속 제품 등

교민현황
12명 (2022년 09월 기준)

한빛부대 현황
2013년 4월 최초 파병 (재건 및 인도적 지원)

2022년 4월 15진 277명 외 UNMISS (유엔남수단임무단) 9명 근무 중

외교부 제공

HSC Q. 그러면 혹시 우리 학교 치위생과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A. 제가 강릉에서 자라나고 군무는 인제에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나고 자란거죠. 그래서 인지 수도권은 교통 체증이 심한 게 싫어가지고 강원도내에서 학업을 계획하였고, 그 중 가장 인지도와 신뢰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이 좋은 한림성심대학교로 방향을 잡게 되었고, 마침 한림성심대학교가 제가 입학했던 18년도에는 강원도 내에서 국방부 협약이 된 유일한 학교였어서 입학처에다가 입학이 가능할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학과장님이셨던 장선옥 교수님께 전달드려보고 가능한지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학과장님이 흔쾌히 와도 된다고 해주셔서 한림성심대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HSC Q. 군인신분이셨는데.. 혹시 수업은 다른 학생들과 같이 똑같이 듣는 건가요?

A. 맞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상 정리를 하고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 됩니다. 신분은 군인이지만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하고 시험도 봅니다. 결석 하면 안되죠.

HSC Q. 치위생과에 여학생들이 많은 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나이가 쪼~금 있는데 지내는 건 어떠셨나요?

A.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걱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여학생이 대다수고 남자는 거의 없다보니까 '동기들도 나한테 다가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던 했지만 누나가 둘이다 보니 여자랑 대화하는 거에 대해 거리낌도 별로 없었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를 좋아했어서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다가갔을 때 당시 동기들이 다행히 잘 받아줘서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내이다 보니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학하자마자 동생이 여러명 생긴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박한결 중사에게 격려를 건네는 문영식총장

HSC Q. 공부하기 힘들진 않으셨나요?

A. 생각보다 적성에 맞아서 즐겁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구요. 초반에는 4점대로 학점을 유지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 떨어졌지만 3점 후반대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HSC Q. 군위탁 학생이 지원할 때 도움이 될만한 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A. 위탁생은 아무래도 군에서 뽑는 거니까 그동안 해왔던 군생활이나 체력수준 같은 걸 점수화해서 뽑는 것이다 그런 것에 중점으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위탁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장기복무현역군인(사관생 포함)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 또는 단체(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하는 자

군위탁생의 임명

군위탁생은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서 선발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각국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에는 각국 참모총장이 임명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위탁생이 될 수 없다**
1. 군복무 중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부적격자로** 판단된 자
 3. **중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
 4. **군무 성적**이 불량한 자
 5.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위탁교육이 불가능**한 자

HSC Q. 마지막으로 하고싶으신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A.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다시 학업을 시작해서 적응이 조금 어렵고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지도 교수님들이 항상 용기를 주시고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서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3년 동안 성적도 나쁘지 않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나이가 많으신데 대학 진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한림성심대학교로 입학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성민 간사

예술을 통한 인문학 콘서트 열려... 큰 호응 눈길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0일 교내 도현대강당에서 '2023학년도 라이프 플러스 인성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성지송 첼리스트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첼로, 뮤지컬)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성찰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0일과 17일 각각 '꿈은 나를 일으킨다', '내 마음을 만지는 뮤지컬'을 주제로 진행했다. 10일 도현대강당에서는 성지송 첼리스트가 '꿈은 나를 일으킨다'의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

하였으며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한 힘든 시간을 음악을 통해 극복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며 꿈을 위한 도전정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강연과 함께 첼로연주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성지송 첼리스트

이후 우리 대학 인성학습상담센터는 5월 17일(수) 도현대강당에서 한정아 아티스프링 대표를 초청하여 '내 마음을 만지는 뮤지컬'의 주제로 특강과 함께 뮤지컬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였다.

김성민 간사

뮤지컬을 통한 학생들의 마음 위로



내 마음을 만지는 뮤지컬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7일 교내 도현대강당에서 1학기 라이프 플러스 인성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 마음을 만지는 뮤지컬'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0일 열린 성지송 첼리스트의 '꿈은 나를 일으킨다' 특강에 이어 5월 17일에는 한정아 아티스프링 대표를 초청하여 '내 마음을 만지는 뮤지컬'을 주제로 강연과 함께 뮤지컬 라이브 콘서트를 진행하였으며 김민철, 류비, 박보영, 장대성

뮤지컬 배우가 같이 참여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줬다.

라이브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은 '미스 사이공', '맘마미아', '라이온 킹', '레미제라블' 등 대표적인 뮤지컬 해설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였고 특히, 강연과 함께 뮤지컬 배우들의 라이브 공연이 이어져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하는 뮤지컬 배우

김성민 간사

계속되는 도전, 멋지다 우리 형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현재 물리치료과 2학년 재학 중인 이수연 학생은 같은 동기들보다 많은 나이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나 거리가

없이 모두와 잘 지내고, 수업도 열심히 듣는 이수연 학생의 특별한 사연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HSC Q. 물리치료과에 늦은 나이에 입학하셨는데, 이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까?

A. 저는 군 생활을 장교로 34년 복무했었습니다. 한림성심대 입학은 작년 22학년도에 입학해서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물리치료과에 오게 된 이유는 일단 집안에 의료인들이 많아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물리치료를 배워서 지식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HSC Q. 입학하실 때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A.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도 있었지만, 일단 입학이 가능한지 정보를 계속 찾았습니다. 2년 전에는 현역의 신분으로 있었기에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딸아이와 같이 수시 원서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 성적이 괜찮아서 지원했던 대학교에 다 붙었고, 그 중에서 제가 춘천을 좋아해서 여기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HSC Q.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자식별의 나이대인데 편한 형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저는 과거의 나보다는 현재의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수많은 부하와 부대를 이끌어 왔지만, 지금은 제 주변 동기들과 함께 가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SC Q. 수업 중 있었던 해프닝이 있을까요?

A. 교수님들이 대부분 제 나이 또래고, 강사님들은 전부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1학년 1학기 때 제일 앞 자리에 제일 가까운 곳에 앉았어요. 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서 뒤로 빠지는 것보다 앞에 가야 줄음도 덜 오고, 교수님들과 교감도 더 잘 되거든요. 처음에는 교수님들이 부담스러우실수도 있겠다생각도 들었고, 한 강사님을 저를 형님이라 부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HSC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인터뷰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준영 기자님과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활동 좋은 거 같아요. 저도 봉사를 꾸준히 하고, 공모전도 수시로 참가하고 있어요. 각자의 목표를 위해 뭐라도 꾸준히 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스펙 관련해서든 운동이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 도서관 주말 개방이나 기숙사 급식 제공같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최준영 기자 jychoi0304@naver.com

교내 축구팀 끝까지 간다 FC 소개

HSC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네 저는 끝까지 FC 수비수 간오학과 2학년 구주원입니다!



HSC Q. 끝까지 FC는 어떤활동을 하나요?

A. 끝까지 FC는 한림성심대의 재학생/졸업생이 모여 만든 축구팀입니다. 저희끼리 추억을 만들고자 이번에 철원 평화컵에 참여했습니다.

HSC Q. 끝까지 FC 활동을 하며 좋은점과 어려움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A. 좋은점은 형/동생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HSC Q. 끝까지 FC 홍보 부탁드립니다

A. 사실 올해 철원 평화컵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팀이라 지속적으로 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속 된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태우 기자 teawoo6567@naver.com

한빛도서관의 영화 FLEX! BOOKFLIX 영화 상영회



동아리제 및 체육대회 기간을 활용하여 2023. 5. 8(월) ~ 5. 10(수) 18:00 ~ 20:00 3일간

우리 대학 한빛도서관 1층 북큐브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BOOKFLIX 영화 상영회가 진행되었다. 빔프로젝터와 웨이브(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며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팝콘과 콜라가 제공되었으며, 학생들은 빈백이나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었다.



BOOKFLIX에서는...

8천 건에 달하는 민원을 넣어 도깨비 할매로 불리는 옥분이 열심히 공부하던 영어가 좀처럼 늘지않자 공무원 민재에게 영어를 배우게 되고, 민재가 옥분이 영어 공부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는 김현석 감독의 영화 <아이 캔 스피크>

뜨거운 열정으로 단기간에 성공 신화를 이룬 30세 CEO 줄스의 회사에 은퇴 후 무리한 삶을 이어가던 70세 벤이 인턴으로 채용되면서, 줄스와 직원들의 일상에 일어난 크고 작은 변화를 그린 낸시 마이애스 감독의 영화 <인턴>

깊은 산골짜기 시골 마을에 사는 미스터와도쿄에 사는 타키. 만날 리 없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서로의 몸과 마음이 바뀐 신기한 꿈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이야기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너의 이름은>

이렇게 총 세 편의 영화가 하루씩 상영되어 재학생들이 취향에 맞는 영화를 날짜별로 골라 감상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최지연 기자 jiyoun607@naver.com

혁신사업단 SDG 프로젝트

SDG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로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년 9년)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이다.

우리 대학 역시 학생들에게 SDGs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SDGs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SDGs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SDG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활동 기간은 2023년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 1회 3시간 총 6회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간오학과, 건설도시과, 물리치료과, 유아교육과, 의무행정과, 치위생과 등 많은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SDGs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SDGs 실천해보며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 및 학생 주도로 사회문제를 인식 및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권태우 기자 teawoo6567@naver.com

다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 '유아교육과' 참여!

춘천시가족센터에서 주관하고 춘천시에서 연계하는 <다문화 인식 캠페인> 사업이 지역주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5월 19일(금) 9:00~16:00에 진행된 행사로 중국/일본/베트남/러시아 등 전통놀이 및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문화체험 존, 베트남 전통모자 만들기, 구연동화로 듣는 다문화,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포토존 등 체험거리가 다양했다.

그 중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 60여명이 '구연동화로 듣는 다문화'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했다. 강원도 춘천시 강원경찰박물관 앞에서 우리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춘천시 소재의 만 3-5세 유아 약 18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구연동화를 진행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인형극 형식의 구연동화로 <짧은 귀 토끼>, <까만 크레파스> 등의 다문화에 대한 포용적인 인식을 기를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에 대한 포용적인 인식을 기를 수 있고 유아들의 흥미와 사고를 자극할 수 있었다. 더불어 동시에 재학생들의 직무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유아교육과의 재능기부 프로그램
박윤아 기자 parkyuna1211@naver.com

찬반토론 :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복지인가? 차별인가?

○ 찬성측 VS 반대측 ×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얹어주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으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층 채무

를 조정해 주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등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한림성심대학교 학보사에서 찬반 토론을 나누어 보았다.

○ 이에은 기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복지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배근 씨는 청년들이 자신의 일거리를 만들 때까지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청년들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잘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도 도전의

밀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 정책 중 청년취업 성공 패키지도 있다. 근로 의사는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구직 촉진 수당, 취업 지원 서비스, 취업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보완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들은 복지라고 생각한다.

× 최지연 기자 :

일례로 정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만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들의 채무를 조정해 주기 위한 제도인 '청년특례 채무조정'은 청년층이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나서 얻은 투자의 손실에 의한 이자의 30~50%를 감면해 주는 정책이다. 물론 원금을 탕해주는 것이 아닌 이자를 조정해 주는 정책이었지만 이는 암호화폐는 물론 주식에도 손대지 않고 예·적금을 통해 열심히 월급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회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일명 '빚

투'(빚내서 투자한) 청년 구제책으로 보일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년의 취업을 장려한 다며 내세우는 여러 정책들은 건전한 구직활동과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모든 청년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진정 취업 의지와 계획이 있는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자율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사용처를 제한하여 효과적인 청년의 취업 활성화를 유도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권태우 기자 :

현재 정부는 청년 빚 탕감 개인회생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 실패로 인해 자산을 잃거나 생활비, 생계를 위한 돌려막기로 빚이 늘어난 청년들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 고정수입이 있고 채무가 현재 자산 보다 많아야 하며 최소 1000만원 이상

의 채무가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지원해 주는 여러 제도들은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 오에스더 기자 :

저소득층 2030세대에게 목돈을 마련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런 일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이 맞아야 하는데,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통한 높은 금리 효과 덕에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가입 조건은 만 19~34세이며 연소득이 3600만원 이하 취업자였습니다. 요건이 맞는 희망자에게

는 큰 도움이 될 테지만, 정작 이런 지원이 필요한 무직 청년이나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닿을 수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경우 매년 3조원 가량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며, 10년 만기 상품이 계속되게 하려면 수습조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 최준영 기자 :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는 파격적인 조건의 저축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는 청년의 저축액을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40~50대 국민들은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세대인데 청년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 하며 불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정책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하는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로부터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

를 받아들여 심리 상담, 진로상담 등을 제공하면서 활동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청년 정책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에는 멀게 느껴졌던 국가와 정부의 도움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청년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노동에 낭비하지 않고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수민 기자 :

청년을 위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취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같은 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 조건을 봤을 때 특정 회사를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제도와 반면 특정 회사를 특정 기간 다니는 조건이 아니라, 이직을 하고 옮겨다니더라도 일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근로하기만 한다면 되는 조건을 가진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알바, 비정규직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가 발

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바의 경우, 매일 가게 운영을 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장기 근무 조건을 우대하여 뽑게 됩니다. 면접을 보면서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는지의 유무는 정확히 모르죠. 지원자가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신청하기 위해 해당 기간만 알바를 하겠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속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제도들도 있다고 하니 자격 조건들을 잘 살피어 수정될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박윤아 기자 :

청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절대적 빈곤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더 극대화되는 계층은 경제적 빈곤층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

을수록 이 문제는 더 두드러지는데요.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근무 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제반 비용들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경제적 원인 때문에 직접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별 뒤에 남은 물건을 보낼 곳이 있으면 어떨까? '이별 박물관'

이별을 생각하면 만남보다 더 큰 충격과 추억이 깃들여 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이별, 어렸을 때 추억과의 이별, 반려동물의 죽음 등 살면서 이별을 경험할 일은 많다. 크로아티아에 사는 올린카 비슈티차 씨와 드라젠 그루비시치 씨는 이별 박물관의 창시자이다. 그들은 서로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이었지만,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그들에게는 이별하는 날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고민하였다. 어느 한 사람이 간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바로 이별 박물관이었다. "누구든 이별 뒤에 남은 물건을 보낼 곳이 있으면 어떨까?"

첫 시작은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에서 시작되었다. 이별의 물건들을 익명으로 기증받고 전시하기로 했다. 몇 번의 팝업 전시를 거쳐 2010년에 처음 문을 열었다. 사연 없는 이별은 없듯이, 박물관에는 사연 있는 전시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예전에 입던 옷을 버리고 남게 된 다리미, 헤어핀 연인과의 인형, 누군가는 냉동실에 37년 얼려두었던 웨딩 케이크 조각을 보내오기도 했다. 모두의 물건에는 추억, 분노, 슬픔, 기쁨 등 다양한 감정이 들어있어 감상하는 사람에게 한에서 감정이입이 되게 된다.

창시자인 비슈티차는 박물관에 전시된 물품과 사연을 통해 사람들이 이별의 아픔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혹은 이 사랑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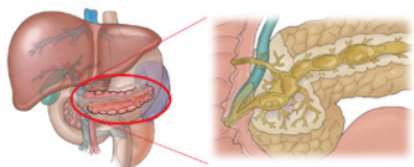
이런 이별 박물관은 국내 제주도에서도 진행되기도 하였다. 박물관에는 '7년 전 사별한 남편 이터던차',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견의 기저귀' 등 기증을 받아 전시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사연들은 더 길고, 슬픔의 감정이 더 깊다고 소개하였다.

국내 개그맨의 투병 고백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란?



DBA 손해보험 제공

5월 초 국내 유명 개그맨이 sns에 대수술과 투병 소식을 전하며 4개월의 투병생활로 30kg이 빠진 근황을 공개했다. 또한 “복강경 수술로 몸에 구멍 7개를 뚫었고, 뚫고도 안 돼서 배 아래로 17cm를 절개해 내부를 여러 번 행궜다”라며 수술 근황을 전했다. 자칫 생소하게 느껴지는 췌장염은 어떤 질병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서울아산병원 제공

췌장염은 췌장 효소(주로 트립신)에 의해 췌장 분비샘이 파괴되거나 췌장에 국소적 혹은 전체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췌장염은 급성과 만성 췌장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급성 췌장염은 췌장에 급성 염증이 생기지만 회복 후 췌장이 정상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례인 괴사성 췌장염이 발생한다. 이는 췌장이나 췌장 주위 조직에 광범위한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급성기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많다. 췌장염의 흔한 원인은 담석과 술(알코올)이다. 담낭, 총담관, 간에 있는 담석으로 인해 담관의 끝부분(바터 팽대부)이 췌관과 함께 막히면서 담즙과 췌장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역류하여 췌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췌장염의 주 증상은 통증으로 명치나, 몸의 왼쪽에서 주로 나타난다. 때로는 등과 가슴, 혹은 옆구리 등으로 통증이 반사되기도 한다.

통증이 발생한 이후 점차 강도가 높게 지속되며 심한 경우 구토가 발생하지만 구토를 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누우면 통증이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럴 때 다리를 모으고 구부린 자세에서 통증이 완화된다. 급성 췌장염의 80% 정도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수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데 20% 정도는 중증 괴사성 췌장염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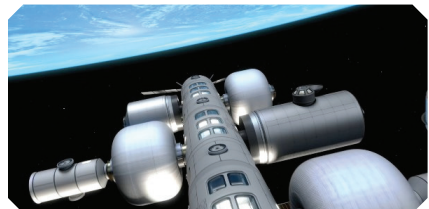
술은 췌장세포에 직접 염증을 일으키고 췌장액의 분비와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급성 췌장염이 완쾌된 후에도 음주를 하면 췌장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니 만성 췌장염 환자도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금주해야 한다. 음주를 하면 이러한 재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나치고 잦은 음주를 삼가는 것이 췌장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예방책이므로 본인의 음주생활을 돌아보고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최지연 기자 jiyoun607@naver.com

우주에서 의약품을 만든다?

우주에서도 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놀랍게도 오래전부터 우주에서 신약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지구에서도 약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우주로 가서 약을 만들까?



우주에서만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바이오 의약품 결정화 연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주는 중력의 방해가 거의 없어서 고순도, 고효율의 화학 반응이나 신소재 개발 실험에 좋은 환경이다. 우주 특유의 미소 중력 환경을 활용하여 고품질 단백질 결정을 생성하고 지상 실험에서는 얻을 수 없는 치밀한 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소 중력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단백질 결정화를 통해 입자 크기가 정확하고 안정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초정밀 구조 정보와 인공지능의약품 개발 기술을 이용하여 약물 설계에 있어 중요한 약한 분자간력을 고려한 화합물 최적화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의약품 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주에서의 신체 상태와 지상에서의 신체 상태는 다르다. 우주에서는 중력의 방해가 거의 받지 않지만, 지상에서는 중력의 힘을 많이 받는다. 우주와 지구에서의 조건도 다르고 인체에 주는 영향도 다르다. 이렇게 다른 조건에서 우주에서 만든 의약품이 과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 만드는 의약품은 실험동물에게 적용하며 개발한다.

우주 환경은 줄기세포 배양에도 유리하다. 줄기

세포 배양은 인간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재생시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재생의학의 바탕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많은 줄기세포 배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균일한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우주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재 우주에서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도전 중이다. 구강 점막염 및 급성 방사선중추근 치료제를 발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암 치료제, 퇴행성 뇌 질환 파킨슨병을 치료하거나 인플루엔자(독감)를 완벽히 예방하는 형태의 약물 후보들을 발견했다.

우주 의약품 개발은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준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우주 의약품을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본다.

이예은 기자 yeeun3042@naver.com

원치 않는 위치 추적, 이제는 차단할 수 있다



애플 뉴스룸 제공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과 구글이 함께 분실물 추적 장치의 무분별한 위치 추적을 차단하고, 악용 문제를 퇴치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는 애플의 '에어태그' 등 위치 추적 장치가 스토킹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된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최근 에어태그와 같은 위치 추적 장치가 허가 없이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치 않는 추적 등 블루투스 위치 추적 장치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업계 표준을 만

드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스마트 블루투스 위치 추적기 업체 치폴로, 유피 시큐리티 등도 지지를 표명했다.

이 표준을 통해 위치 추적 장치는 스마트폰 등의 무단 추적 감지 및 경고 기능과 호환돼 에어태그에 의해 추적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에어태그는 동전 모양의 블루투스 기기로 소지품에 부착해 놓으면 해당 물품을 분실했을 때 즉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추적 장치이다. 그러나 출시 이후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랐고, 스토커들이 은밀하게 피해자의 뒤를 쫓는 데 이 기기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해 앱 개발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스토킹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론 황 애플 감지 및 연결성 담당 부사장은 "애플이 '에어태그'를 출시한 건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물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안심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이 새로운 산업 사양은 기존의 에어태그 보호 기능을 발전시키고 구글과 협력해 iOS 및 안드로이드에서 원치 않는 추적을 퇴치하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버크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은 "블루투스 트래커는 사용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원치 않는 추적이 발생할 가능성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고, "안드로이드는 사용자 보호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업계와 협력해 블루투스 추적기의 악용 문제를 퇴치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에스더 기자 esther005153@gmail.com

곰팡이가 플라스틱을 먹는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식품 용기, 장난감 등의 제작에 사용되는 매우 단단한 플라스틱이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는, 호주 방송국(ABC)을 통해 곰팡이가 폴리프로필렌을 5개월 이내에 100% 분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알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폴리프로필렌 PPE 폐기물이 환경으로 누출된 양은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300만 톤 이상에 달하며, 이는 자연환경의 주요 생태학적 위험 요소이고, 미세 플라스틱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일회용 마스크의 주재료는 폴리프로필렌이며,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쓰레기장에서 매립, 소각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폴리프로필렌이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영국 연구팀에서는 마스크 1장을 태울 때 50g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또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는 폴리프로필렌을 1t의 양만큼 태울 때 약 3.07t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나 폴리프로필렌은 재활용되는 것이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곰팡이로 빠르게 분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호주 한 대학의 연구팀은 최근 'npj 물질분해 (npj Materials Degradation)' 저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열·자외선 등으로 폴리프로필렌을 곰팡이가 분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곰팡이를 접종해서 30일 배양하면 폴리프로필렌의 21%, 90일 동안 배양하면 25~27%가 분해된다는 것이다. 먼저 이들은 폴리프로필렌을 각각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전처리했다.



첫 번째는 에어 프라이 오븐을 이용해 200°C에서 15분 동안 열을 가했다. 두 번째는 자외선 램프(UV, 254nm 파장)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24시간 노출했고, 세 번째로는 산화제인 펜톤(Fenton) 시약에 7일 동안 노출했다. 그 다음 500ml 플라스크에 배양액 200ml에 넣고 전처리한 폴리프로필렌은 40mg을 투여한 다음 곰팡이 균주를 접종했다. 배양액에는 미네랄, 비타민만 들어있고 곰팡이가 먹이로 이용할 수 있는 탄소 성분은 넣지 않았다.

실험에 사용한 곰팡이는 누룩곰팡이의 일종인 아스페르길루스 테레우스(Aspergillus terreus)와 엔지오돈티움 알BUM(Engyodontium album)으로 서로 다른 플라스크에 접종해 분해 능력을 비교했다. 특히 이 연구팀은 영양분과 수분이 낮은 가혹한 환경에도 생존할 수 있어 이번 연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푸리에 변환 적외선(FTIR)' 분석 방법으로 실제 폴리프로필렌 분해와 관련된 화학반응이 일어났는지도 조사했다. 전처리 과정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 물을 밀어내는 플라스틱의 소수성(疎水性)이 감소해 곰팡이 효소가 폴리프로필렌을 생분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곰팡이가 폴리프로필렌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조건을 최적화하면 분해 속도를 더 높일 여지가 충분하며, 분해 효율이 향상된 이후에 상업적인 규모로 공정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용화를 위해서는 처리 속도와 경제성 문제,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곰팡이 바이오매스 활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에스더 기자 esther005153@gmail.com

기자칼럼

쉬어가도 괜찮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큰 성과를 얻거나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도 좋지만 그 중간에는 쉬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 매사에 의욕적이고 전력을 다하여 살면 번아웃(burn out)이 오기 마련이다. 번아웃이 오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피로감을 느끼고 의욕적으로 임했던 것에도 무기력함을 느끼며 삶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열심히 일 한 나에게 주는 10분의 휴식, 30분의 쉼 말고 진정한 쉼은 어떻게 취하는 것이며 어떻게 쉬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할 수 있을까?

진정한 쉼은 자신을 알고 (who we are), 나의 필요, 성격, 스타일, 신뢰의 상대, 인생의 방향성을 알 때 취할 수 있다. 내가 나의 내면의 세계를 알 때, 나는 언제 평안을 느끼는지 알 수 있고, 나 자신의 쉼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mindful), 성숙하게 자신을 보살필 수 있다.

올바른 쉼의 3가지 원리

1. 멈추기 (Stop)

우선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쉼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이다. 계속 일하고 과도하게 피곤해진다면 우리는 이후에 영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멈춤은 믿음을 요구한다. 내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왔듯이 또 떠날 존재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쉼을 위해 잠시 멈출 수 (stop and set apart) 있다.

2. 쉬기 (Rest)

그다음은 쉬는 것이다.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을 벗어난, 불안과 걱정을 떠난 활동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가벼운 독서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친구와 차를 마실 수도 있고, 산책이나 운동과 같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나만의 휴식 방법(recipe)을 만들 수 있다. 단, 이 활동들이 일로 되고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거나 완벽주의나 중독을 부추킨다면 그것은 다시 멈추고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3. 음미하며 즐기기 (Delight)

힘에서 빠질 수 없는 덕목이 삶이 주는 기쁨을 음미하며 즐기는 것이다. 성경에서 자주 “너 자신을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는 구절을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자신의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좋았다 (good)라고 표현하시며 즐기셨다. 인간인 우리도 자신의 강한 면과 약한 면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accept), 축하하며 (celebrate), 삶의 작은 아름다움과 감동들을 -비본 삶에서는 놓치지 쉬운- 음미하며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항우울증/항불안제 같은 작용을 한다.

결국 쉼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 급급한 삶을 살기보다는 삶을 관조하며, 영적, 정서적, 관계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혼자서는 해결되지 않거나 스트레스 많은 시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함께 극복해 나가는 자세도 중요하다. 자신에게 쉬는 것도 선물하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

강수민 기자 sumin8976@naver.com

너도 되어 보지 않을래, 올림픽 자원봉사자?

2024년 1월 19일부터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청소년 올림픽은 IOC가 주관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스포츠 대회로 15~18세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이다. 70여 개국 2900여 명이 참가하며 7개 경기, 15개 종목이 대회에서 펼쳐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성인 올림픽과는 올림픽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 경쟁 외에 청소년의 참여와 교육, 문화 활동을 중시한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 한 마디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For, with, & by Youth)” 대회이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성인 올림픽과 같이 4년마다 개최된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자원봉사를 지원한다면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다.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대회 상황·배정 직무에 따라 근무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모집대상은 영어전문통역이 가능한 자 235명, 만19세 이상인 자 1650명,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145명을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총 2,030명이다.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선발 절차로는 요건 심사, 면접 심사, 기본교육, 최종 선발이 있다. 기본·우대 요건, 결격사유 등 심사를 6~7월에 하여 요건심사를 한다. 그 후 요건 심사 합격자에 대해 6~7월에 면접 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면접 심사 합격자에 대해 기본교육을 8~10월에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0월에 기본교육을 이수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접수 및 신청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한다.

자원봉사자가 된다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첫 번째는 선수 안내를 한다.

숙박, 선수촌, 식음, 출·도착(공항), 선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두 번째는 미디어 운영을 한다.

미디어 안내, 선수 인터뷰 안내, 방송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세 번째는 통신·기술 분야이다.

경기장 통신·기술 분야 장애 접수 및 사무 지원, 기상 서비스 지원 등을 맡는다.

네 번째는 의식·행사·의견이 있다.

대회 주요 관계자 활동, 국가별 올림픽위원회 안내, 언어 서비스, 등록 센터 운영, 개폐회식, 환영·환송식 지원 등을 한다.

다섯 번째는 대회 운영이다.

경기 일정·결과 등 제공, 경기장비 관리·운영, 경기 정보 데스크 운영 지원, 마케팅 파트너 안내·브랜드 보호·라이선스 스토어 지원을 한다.

여섯 번째는 일반 운영이다.

물류 지원·경기장 입장·룩&사이니지 관리, 수송 운영 지원, 이벤트 서비스(경기장 관중 안내·출입 통제 등),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일곱 번째는 의무로 의료통역, 도핑 업무 지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안내를 하며 개최 도시 지역을 안내한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근무 시간에 대해 봉사 시간을 인정한다. 그리고 대회 운영인력 유니폼을 제공한다. 또한 숙박·식사·셔틀버스(근무지<->자원봉사자 제공 숙소 등)를 제공하는 혜택이 존재한다.

신청 방법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원봉사 홈페이지 (<https://volunteers.gangwon2024.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에서 뜨거운 열기를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

이예은 기자 yeeun3042@naver.com

국제 간호사의 날 '간호법 공포' 촉구시위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여 개 간호대 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 5개 차로를 가득 메운 채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겸한 집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약 2만 5천명으로 추정되며 모두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외치며 파도타기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림성심대 간호학과 교수들과 학생들도 모두 참여하여 간호법 제정에 힘을 보탤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안마사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의료법은 간호사의 진료 관련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런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업무 및 특성을 반영하고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의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여 간호법 제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였다. 간호법 제정이 통과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박윤아 기자 parkyuna1211@naver.com

식중독 바로 알기!

본격적인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식중독 환자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2018~2022)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발생 건수의 27%가 4~6월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가볍게 넘기지 말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식중독은 우리가 '장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한다.

독소가 소화관의 위쪽에 있는 경우 구토, 독소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 설사, 심하면 전신 발열, 신경 마비, 근육 경련,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식중독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선, 문제가 될 만한 음식을 파악하고 구토, 복통, 설사가 거의 동시에 급속히 발생하고 발열이 동반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복부 초음파 및 CT 등을 활용하여 구분할 수 있다.

식중독의 치료법은?

- ▷ 구토, 설사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한다.
- ▷ 전해질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수액을 공급한다.
- ▷ 설탕물, 소금물, 이온음료를 마신다.
- ▷ 이후 설사가 줄어들면, 기름기 없는 음식(미음, 쌀죽)부터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신다.

식중독 치료 시 주의할 점은?

- 무조건 굶으면 안 된다.
: 위장에 위치한 장 상피세포는 2~3일만 음식 공급을 하지 않으면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 공급이 적절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설사가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 구토는 위장의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반응이고 설사는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반응이므로 약제를 잘못 사용하면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져 회복이 지연되고 경과가 나빠질 수 있다.

절대 하지 않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은?

- 식재료는 신선한 것으로 필요한 만큼 구입한다.
- 열이 많이 발생하는 기구 주위를 피해서 보관한다.
- 조리 시 손을 신경 써서 세척한다.
- 익힌 음식/익히지 않은 음식 분리 및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한다.
-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상온에 두는 것 피한다.
- 날 것의 해산물은 조리 과정에 오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쓴다.
- 채소류는 꼼꼼히 세척한 후 시간 이내 사용하고 냉장 보관한다.

날이 풀리면서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데, 이때 음식은 냉장/냉동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상온에 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식중독 발생이 여름에 가장 많기는 하나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위생적인 습관으로 건강관리 잘 하도록 하자.

강수민 기자 sumin8976@naver.com

강릉 산불 기부! 댓글만 써도 도울 수 있어요!



2023년 4월 11일 8시 2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남곡동 4번지에서 양간지풍으로 인해 수목이 전도, 대형 화재로 확대되어 379ha의 산림이 불에 탄 사건이 있다. 강릉시에 따르면 강풍에 의해 소나무가 부러지는 과정에서 전신주를 건드리면서 불이 났고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을 타고 불씨가 인근 산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8시간의 사투 끝에 불길은 잡혔지만 이제까지 강릉에서 발생했던 다른 산불들과 다르게 민가 지역에서

난 산불이라 인명, 물적인 피해가 심했다. 많은 펜션과 집이 연소되어 한순간에 타버리고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훼손되었다. 이에 관광숙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들의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형산불 여파로 관광사업 침체가 우려되자 '산불 피해지역 강릉, 관광이 최고의 자원봉사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에서도 지난 11일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 어린이재단과 함께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기부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같이가치 이용자의 모금액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생수, 먹거리 등의 식료품과 담요 등의 생필품, 구호

키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주거 및 생계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모금함 페이지 또는 개별 모금함을 통해 직접 기부하거나 댓글, 응원 공유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이용자가 모금함 페이지 하단에 응원 댓글을 작성할 때마다 카카오가 댓글 1건 당 1000원을 기부하며, 개별 모금함을 클릭해 댓글, 응원, 공유 시 1건 당 100원을 추가로 기부한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모금 캠페인 진행과 더불어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도 직접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복구 작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윤아 기자 parkyuna1211@naver.com

성심이들의 장학리 문학 글짓기

*이 글은 올해 신설된 교양과목 '글쓰기 교실(대학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매주 발표되고 있는 200여편의 창작글 가운데 학보사 편집진들이 엄선한 글입니다.

내가 바라는 나

-방사22 이서진-

용기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도전할 용기, 사랑할 용기, 어딘가에 나설 용기, 버릴 용기, 그만 둘 용기

나는 너무 어렵고 아직 모든 게 무섭다. 여전히 겁이 많아서 생각이 빠지고 빠진다. 용기를 내기 위해 오늘도 허겁지겁 도전하고 버려진다.

책갈피

-식영23 반효은-

자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 다시 침대 위에 누울 때까지 완벽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생각나는 여러가지 후회들

책갈피 하나 꽃아두면 편할거 꾸깃하게 남겨 지나쳤을까

과거와 현재 사이에 후회가 없게 하나정도 표시를 해두자 나를 위해서라도...

솔직함

-간호22 송은서-

"솔직한 게 제일이다. 솔직한 게 좋은 거다" 감춤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되고 진실한 말을 전한다는 것. 솔직한 것은 좋다고 말한다.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이는 것, 감추는 것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솔직한 것은 마냥 좋게만 작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타인에게 솔직할 때는 여러모로 주의해야 한다. 때론 나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게 상대방에는 부담이 되고 불편할 짐이 될 수 있고 생각과 마음을 감춤없이 내비쳤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겐 불쾌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저 솔직하게만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무작정 솔직해져서는 솔직함이 긍정적인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솔직해지기 전에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무례하고 불쾌하지만 한 솔직함이 태버리고 말 것이다.

결국엔 솔직함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솔직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봐야 한다.

권태우 기자 teawoo6567@naver.com

취준감 프로그램으로 자신감 키우자!



우리 대학에서는 취업의 자존감을 높이는 취준감 높이기 프로그램이 2023년 5월부터 2023년 6월 까지 진행되며, 레저 스포츠과 외 6개의 과 236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취준감 높이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직무와 필요 역량에 대한 진로를 설정하고 전문대 학생만의 취업 자존감(자기 주도성, 자신감 향상 키우기)을 찾기 위함이다.

총 3차시로 진행되며 1차시에서는 자기이해, 감정 알아차림을 주제로 그림카드를 활용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알아차리기, 자기이해와 현실 점검을 통한 긍정적인 비전 마인드 형성이 주요 내용이다.

2차시는 진로 및 비전설계를 주제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직무와 필요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전공 활용과 진로 설정을 위한 방향 설정, 골든서클을 활용한 쉽고 구체적인 진로 비전의 구체화가 주요 내용이다.

3차시는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을 주제로 컨투어 드로잉으로 틀을 깬 그림 그리기로 자기 주도성,

자신감 향상 키우기, 미래에 대한 내적 긍정성의 자신감, 기대 키우기(열정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취준감 높이기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신입생으로 대학 생활 적응 도움 및 자존감 찾기를 통한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 상승과 참여 학생의 진로 적성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진로 설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

취준감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도 키우고 나를 더 알아감으로써 진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니 참여 학생들의 발전이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

강수민 기자 sumin8976@naver.com

도서관 이달의 책

'책으로 만나는 세계사'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일은 저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

곡 쌓인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른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사를 이해하고 알려지지 않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자!



1페이지 세계사 365

심용환 지음 / 빅피시 출판사 / 2021년 출간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 909 ㅅ978 0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지음 / 돌베개 출판사 / 2021년 출간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 909 0582 7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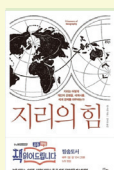


인간의 흑역사

툼 필립스 지음 / 월북 출판사 / 2019년 출간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 909 ㅍ97 0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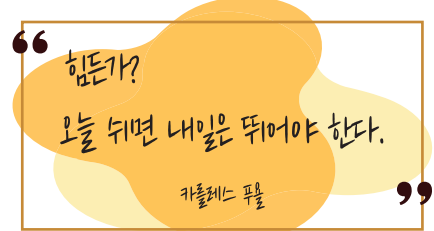
조지무쇼 지음 / 사람과나무사이 출판사 / 2021년 출간
소장위치 : 도서관 3층 자료열람실
청구기호 : 513.97 ㅅ684 ㅅ



지리의 힘 :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팀 마셜 지음 / 사이 출판사 / 2018년 출간
소장위치 : 도서관 1층 북큐브 권장도서코너
청구기호 : 340.98 0166 ㅅ

한 줄 격언, 공감 한 가득



우리는 자신이 정해놓은 혹은 원하는 목표, 목적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늘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다. 오늘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일 좌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좌절했지만 내일은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정하게 흘러가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나태해진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다. 동화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 힘들다고 쉬었다면 거북은 토끼를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토끼 역시도 쉬지 않았다면 거북에게 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이 오늘의 노력으로 얻은 땀은 중요한 순간 여러분이 인생에서 사막을 마주하였을 때 오아시스가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권태우 기자 teawoo6567@naver.com

즐거웠던 체육대회의 추억

글: 권태우 / 박윤아
그림: 조예솔

5월 9일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들 즐겁게 체육대회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확 풀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즐거웠던 체육대회의 추억을 웹툰에 담아보았습니다. 같이 그대로 돌아가볼까요?



5월 9일, 모두가 기대하던 체육대회가 드디어 열렸어.

2023 한림성심대 학생들이 즐거운 체육대회 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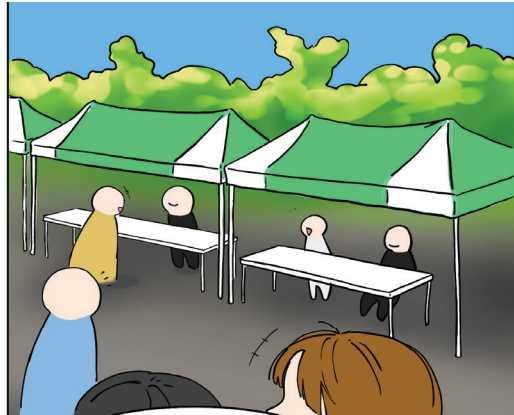
혈압과 혈당 체크, 팔찌, 반지, 스티커 만들기 등, 다양하고 재밌는 부스들이 있었지

도서관에선 북플릭스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어.

피구결승 북과 장구를 이용한 응원도 아주 멋졌고,



그렇게 이번 체육대회는 바리스타제과제빵, 레저스포츠, 글로벌관광과가 우승하게 되었어.



이번 체육대회에선 다양한 동아리 부스를 진행했어.



풋살결승 승부차기도 명장면 중 하나였어.



이렇게 3일간에 체육대회가막을 내렸어. 내년 체육대회도 기대되지 않아?

내년 체육대회도 기대돼!

윤대원 이사장님 '린네 금메달' 수상



한국에서 처음으로 '린네 금메달' 수상
학술교류·인재양성·의과학 발전에 기여

우리 재단 윤대원 이사장님이 스웨덴 읍살라대학교가 주관하는 '린네 메달(Linnaeus Medal)' 시상식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477년에 설립된 읍살라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명문 대학으로 특히 기초와 임상을 연계하는 중개의학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2020년에 수상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시상식이 취소됨에 따라 2023년 5월 30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시상식을 진행함

